

천재와 광기의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예술가 등 창조적 정신의 핵심적 본질 파헤친 책 잇달아 출간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천재와 광기의 관계'를 다룬 책 두 종이 출간됐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이규동씨의 「정신분석학적으로 본 위대한 콤플렉스」(문학과학사)와 소설가이자 정신과 전문의사인 이나미씨의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문학사상사)가 그들이다. 前者의 책은 황진이·이상 등 우리나라의 천재적 역사인물 및 문인들의 창작의 원동력을 '병적학'이란 분야를 통해 규명한 저작이다.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는 "광기와 이성, 내 마음속에 동거하고 있는 그 둘의 서막한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기를" 바라며 쓴 수필집으로서 "광기와 창조성은 동반자"라는 점을 역설한다.

그리고 천재와 광기와의 관계를 다룬 외국 책들의 번역서로는 「광기 없는 사회가 존재하는가」(피에르 작세를 저, 박치환 역, 동화문화사), 「천재의 심리학」(크레치머 저, 이우용 역, 늘푸른나무), 「천재의 정신병리」(이다신·나카이 히사오 공저, 이현수 역, 전파과학사), 「아이작 뉴턴」(안드레이 저, 고윤석 역, 전파과학사), 「레오나르도 다빈치」(프로이트 저, 피세진 역, 제일출판사) 등이 있다.

천재와 광인의 구분은 '창조성' 기준

이 책들은 "병 때문에 창조적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또는 병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이루어졌는가"하는 문제와, "정신병리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인가, 아니면 그렇지 때문에 비로소 천재인가" 하는 파토히(病理學, Pathographie)의 근본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때문에"인가, 아니면 "불구하고"인가. 천재와 광기의 밀접한 관계는, 「천재의 심리학」에 의하면, 옛 고대 그리스 때부터 언급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종종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광기를 띤다. 최근에도 소크라테스나 옴페도클레스, 플라톤, 그밖의 많은 사람들, 특히 시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로마의 세네카는 "치매를 겸비하지 않은 智者는 없다"고 말했다.

천재와 광기와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동일한 분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따라 세 계보로 나뉜다. 「천재의 정신병리」에 따르면, "정신의학적 천재론의 계보"와 프로이트에서 비롯된 "정신분석학적 방법"과 미국의 "행동과학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그것이다. 그리고 광기의 측면에서 보자면 각

"정신병" "환자" "정신병원"을 다룬다고 「광기 없는 사회는 존재하는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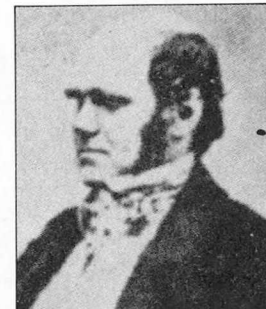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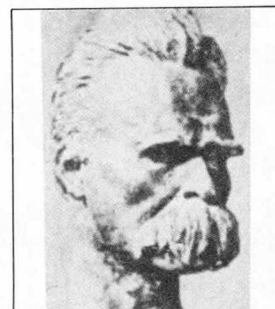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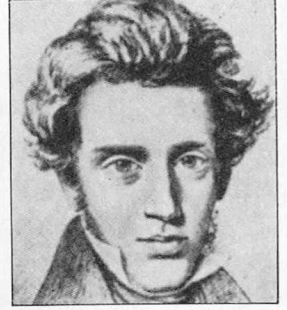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사람 롬브로소이며, 그는 "천재는 광기이다"라고 정의하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본격적인 "정신의학적 천재론"의 계보는 독일의 정신의학자 피비우스에게서 시작됐다. 그는 '천재의 정신의학

"이성 자체가 하나의 착란"이므로 천재와 광인의 삶은 획일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하나의 전복적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천재와 광기와의 관계를 다룬 책들은 경화된 사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뛰어난 인물들의 일대기로 읽힌다. 광기에도 "불구하고" 천재인가, 광기 "때문에" 천재인가. '병적학'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적 傳記'를 의미하는 파토히(病理學) 개념을 창시했으며, 피테·니체·루소 등의 천재에 대한 개별적 연구 업적을 남겼다. 그후 현상학적 이념에 기초한 칼 야스퍼스의 「스트린베리와 반 고흐」(1922), "천재를 시대의 함수로서 파악하는" 랑게 아이히바움의 명저 「천재·광기·명성」(1928) 등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 책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분야의 最古의 고전은 "체질생물학의 입장에서 천재의 창조활동에 접근"한 크레치머의 「천재의 심리학」(1929)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천재는 광기이다"라는 명제를 심화시킨다. 생물학적으로는 "천재성과 정신병질적 측면 사이에는 관련이 존재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으며, 심리학적으로도 "정신병리적인 것이 천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내적 구성요소"라는 것. 그 예로 분열병 초기 증세의 윌던린, 조울병 증세의 피테, 매독성 뇌질화에 걸린 니체를 분석한다. 그는 이어서 천재는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극단적인 변종"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 정신의학적 천재론들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인들에 의해 문화적 영웅을 낭만적으로 치켜올리는 "우월의식의 발현"이자, 한편으로는 천재를 건강인 이하로 떨어뜨려 저자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천재 콤플렉



광기란 '사유의 產苦'이다. 광인은 사유속에서 지멸하고, 천재는 산고를 이겨내고 작품을 생산한다. 사진은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루소, 윌던린, 키에르케고르, 피테, 다윈, 니체.

스"의 소산이었다고 「천재의 정신병리」의 저자들은 지적한다.

병적학 연구의 두번째 입장인 정신분석학적 방법의 최초의 저작물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1910)는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소개됐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에게서 "천재적인 변독임"을 보고서 레오나르도를 연구했다. "천재라는 것만 빼면 다빈치는 정신병 환자와 똑같은 자질을 지녔다"는 것. "나는 언제나 독수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운명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어릴 때 일을 생각해보면 내가 요람에 있을 때 독수리가 내려와서 꼬리로 내 입을 열고 내 입술을 여러번 때리는 것이었다"라는 레오나르도의 노트를 분석하여 프로이트는 "그는 그 자신을 아기 그리스도와 동일시"했으며 "열정적으로 여자를 안아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결론짓는다.

사회를 반성케 하는 광기야말로 천재성

그 프로이트가 「천재의 정신병리」에서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정신병리학적 방법론으로 분석당하고 있다. 프로이트 자신의 생애야말로 신경증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것. 그에게 환자인 "자기를 비치는 거울"로서 "자신의 신경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석을 발견, 평생 자기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전형적 외디푸스 상황이 연출되고 형제와 라이벌적 갈등을 갖는" 등 위기적 상황을 "학문을 자기해방의 수단으로 전화하여 거기에서 진짜 자기의 주제를 발견"하는

창조적 상황으로 이끈 천재였다는 해석이다.

「천재의 정신병리」는 특히 여타 천재론 연구서들이 인물의 내면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긴 예술가·사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뉴턴(분열병)·다윈(조울병)·프로이트(신경증)·비트겐슈타인(분열병) 등 난이도 높은 과학자들의 창조성을 파고든 천재론이라는 점에서도 이채롭다.

「천재의 심리학」은 천재와 인종의 문제, 정신생활의 주기성, 性, 여성에게 천재가 드문 이유 등등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과제들을 방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규명한다. 이 책은 천재적 인물의 비극적 열정에 대해서도 할애한다. 천재는 스스로 파멸·파산하는 광인에 비해 내외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한 완성된 인격이지만 "재능 때문에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뇌찬 삶을 살게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나 고독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능하듯이, "광기에 대한 주제적 접근"인 「광기 없는 사회가 존재하는가」는 각 민족, 문화, 시대에 따라 광기(광인)을 어떻게 의식했는지를 설명한다.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필요한 '참고서'인 이 책에 의하면 광기란 "사유의 產苦"라는 것. 그리고 천재는 창조자이지만 "병든 천재"는 "그가 만든 작품 속에서 자멸한다"는 설명이다. 광인과 천재의 경계는 자신의 사유 속에서 자멸하느냐, 사유의 산고를 이기고 작품을 창조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셈이다.

—김중식 기자